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화재 피해 주민 '출장 청소 지원' 시작 복구 작업 본격화

2026. 7. 29.

28일 오후 전문 청소업체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직원들이 서해구 관내 임시 대피소에 체류해온 주민의 거주지를 청소하고 있다.

- **인천 서해구 임시 대피소 체류 주민 대상 접수**
- **첫날 대피소 생활 가구 2곳 주거지 청소 "대피소 떠나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돼"**
- **CFS, 무료 건강검진부터 온·오프라인 피해지원센터 운영.."지역사회 안정에 총력"**

2026. 07. 29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출장 청소업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기와 분진 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빠른 현장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CFS는 인천 서해구 관내 임시 대피소에서 체류해온 화재 피해 주민 대상으로 전문 출장 청소업체 지원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28일부터 인천 신현초등학교·신현북초등학교·신현여자중학교 등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3곳에서 체류해온 주민을 대상으로 출장 청소업체 요청을 접수 받기 시작했으며, 순차적으로 청소 지원에 나선다.

이에 CFS는 28일 오후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해온 화재 피해 가구 2곳의 주거지에서 청소를 진행했다. 전문 청소업체가 베란다·거실·화장실 등 주거공간의 천장·벽·바닥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고 소독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CFS 직원들도 현장 일손을 도우며 힘을 보탰다.

이날 청소서비스를 받은 한 주민은 “욕실과 창틀, 베란다에 쌓인 묵은 먼지를 전문가들이 벗겨 주셔서 속이 시원하다”며 “대피소에서 나와 편하게 우리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주거지가 화재 현장과 가깝거나 바람길에 위치해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로 청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CFS는 전문 출장 청소업체 서비스를 확대해 대피소에 체류하는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CFS는 지난 24일 지역 주민의 빠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종합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CFS는 화재 현장 인근에 ‘긴급의료 지원 센터’를 꾸리고 대한중앙의료봉사회 소속 의사, 약사 등 20여명의 전문 의료진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인천 신현 원창동 2청사에 ‘쿠팡 피해지원센터’를 마련해 2개월 간 운영에 돌입했으며, ‘쿠팡 피해지원 전담 콜센터’는 4개월간 운영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는 물론 청소비, 세차비 등 화재와 관련된 피해 사항을 접수할 수 있으며 피해 지원 신청은 매일 오전 9시~저녁 6시까지 가능하다. 접수된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등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CFS 관계자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청소업체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접수받는 내용을 토대로 주거지 등 현장으로 출동해 청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